中國訪問記 〈연재〉 〈2〉

(91. 8. 18~ 91. 8. 28)

제공 : 裵 永 斗

〈속〉 雲南省約用植物研究所 生産課長의 情熱的인 說明을 우리 一行은 놓칠세라 熱心히 들었지만 머리에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안간 나이가 많은 幹部級后展적원에게 앞으로의 交流전망을 고려하여 栽培개발에 必要한 資料(필요하면 또는 편람표)들이 있다면 좀 提供해 줄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드니 上部와 相議后 알려주겠다 하였음으로 기대를 해보았으나 종내 그런 조직적인 편람표 같은 것은 없고 다만 科學院 선전자료인 팜푸렛 하나만을 주는데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中國本土 訪問의 主目的은 이곳에 선만해도 60%는 達成하게 된 셈이라고 生藥협회 程度로 誠意를 表하는데는 初行者로서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 一行들은 企畵관점에서 취재를 해왔음으로 後日 이 취합이루어 진다면 相當한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展望하면서 아쉬운 作別을 고했다.

研究所간부들을 초빙 昆明市一流 飯店에서 生藥交流에 對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름기 제거한 中國點心을 맛있게 들었다. 午後에는 이 幹部들의 案內로 미리 約束된 市內中心街에 자리잡고 있는 雲南省 約材公司(製藥會社)를 訪問하였다. 牛馬車, 초미니 아가씨, 낡은 自轉車行列등 新舊文化의 혼숙지대를 눈요기 하면서 武裝公安員이 엄하게 지키고 있는 國家直營의 公司內 분위기는 좀 싸늘했다. 우선 人口에서부터 火氣류지참을 禁했고 營內사진촬영은 許可없이 못한다는 전갈이였다. 우리나라와 日本등지에서의 한 방업계 질서와는 전연 딴 판이였다.

社會主義國家라는 點과 中國에서의 漢方比重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實感나게 하였다. 이 公司에는 四層으로된 万坪以上의 藥材倉庫가 있었는데 층마다 管理責任者(女性 公安員)의 監督下에 說明이 加해졌다. 各層의 규모는 3천坪씩인데 수많은 건재들이 질서정연하게 品種別로 잘 비장되어 있었고 6백여종의 藥材가 豫想밖의 좋은 管理狀態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내심 놀랐다. 이곳에 비장되어 있는 6백여종의 藥材들이 國家管理下에 中國全國에 供給되면서 一部는 對外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中國에서의 漢方은 洋藥과 50對50의 比重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管理나 取扱은 매우 엄하여 절대 火氣얼씩, 사진촬영금지등이 였으나 나중에 간절하여 사진촬영마는 전면 허락 되었다.

藥用植物研究所에서 미루었던 冬虫夏草·三七根, 계피 등의 몇가지 加工品을 이곳에서 볼수 있었으나 끝내 栽培과정이나 加工과정을 見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金東均支部長이 애쓰면서 求하고저하던 팜플(pamphlet)은 볼수 없었다. 加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문앞에서 現場見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보다 高位層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체 물러 나와야 했다. 見學과정에서 中國産인 地黃, 川芎, 당귀, 복령, 강활, 백출, 목단피, 두충, 백지, 우슬, 반하 등을 유심히 점검해 보았으나 우리나라 主産品과 별다른 차이를 선듯 발견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色다른 이름들의 自然, 非自然生의 草材들이 줄비하게 잘 쌓여져 관리되고 있는데는 정말 中國에서의 漢方比重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장차 官·民 어느편이던간에 이와같은 施設과 取扱管理상태를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生覺하면서 하루의 알찬 見學과정을 마치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와 그동안의 피로를 해결하는데 힘썼다.

雲南省에서의 漢方分野 見學課程에 대하여 우리 一行 各各의 리포트가 취합 될수만 있다면 생생한 기록집을 만들수 있겠다고 生覺하면서 내일은 世界에서 둘도없는 2억7천년前에 천지개벽(인도 북부와 中國남부지역의 지각변동)에 依하여 바다가 육지로 변해 생겼다는 해발 1천8백m高地에 형성된 기암괴석의 石林 地帶를 관광하는 날이다.

◇91년 8월21일 달음

다음 일찍 朝食時에 호텔가게에 들러 石林및 昆明市의 名所 그림엽서들을 구하여 事前예비지식을 얻어 두었다.

9時30分에 호텔을 출발 가이드와 다이나스티여행사本社 오화빈사장의 안내說明을 들어가면서 石林으로 向했다. 昆明市에서 石林까지는 약2시간이 所要되므로 약간 지루한 이時間을 매꾸기 위하여 車內에서 씹다 十八番을 한曲씩 뽑아되면서 달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目的地에 닿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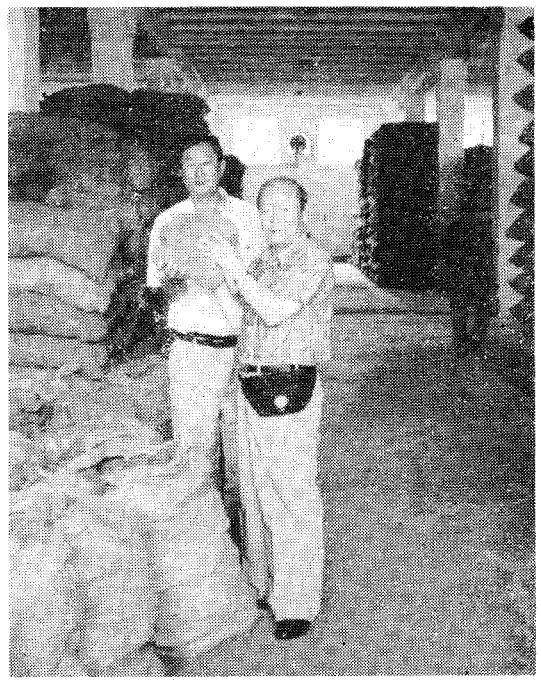
途中 左側으로 昆明市에서 北쪽으로 달리는 列車를 보았다. 線路는 신기하게도 山中허리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불탄스사람들의 기술에 의하여 부설되었으나 너무 나 느리기 때문에 할머니가 안고 가던 닭 한마리가 차창을 넘어 날아가자 할머니가 뛰어내려 그 닭을 잡아 다시 그 기차를 타고 갔다는 우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만만디 속도였다고하나 이제는 제법 빨라 우리가탄 봉고차와 거의 같이 달리고 있었다. 민가도 없는 산악중허리에 선로를 부설하게 된 까닭은 수용부지에 대한 배상과 주민들의 거부반응 등을 고려하여 아예 잘들을 제어해 버리고 百年大計를 위하여 이런 공간지대를 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牛馬車, 초미니 아가씨, 낡은 自轉車行列등 新舊文化의 혼숙지대를 눈요기 하면서 武裝公安員이 엄하게 지키고 있는 國家直營의 公司內 분위기는 좀 싸늘했다. 우선 人口에서부터 火氣류지참을 禁했고 營內사진촬영은 許可없이 못한다는 전갈이였다. 우리나라와 日本등지에서의 한 방업계 질서와는 전연 딴 판이였다.

社會主義國家라는 點과 中國에서의 漢方比重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實感나게 하였다. 이 公司에는 四層으로된 万坪以上의 藥材倉庫가 있었는데 층마다 管理責任者(女性 公安員)의 監督下에 說明이 加해졌다. 各層의 규모는 3천坪씩인데 수많은 건재들이 질서정연하게 品種別로 잘 비장되어 있었고 6백여종의 藥材가 豫想밖의 좋은 管理狀態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내심 놀랐다. 이곳에 비장되어 있는 6백여종의 藥材들이 國家管理下에 中國全國에 供給되면서 一部는 對外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中國에서의 漢方은 洋藥과 50對50의 比重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管理나 取扱은 매우 엄하여 절대 火氣얼씩, 사진촬영금지등이 였으나 나중에 간절하여 사진촬영마는 전면 허락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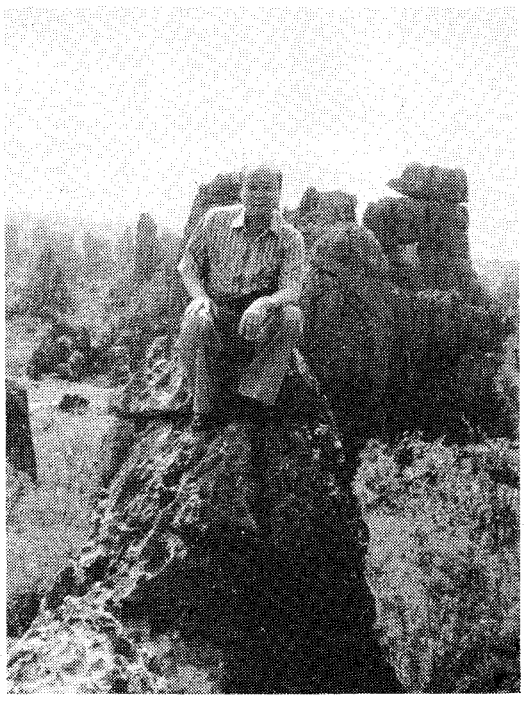
藥用植物研究所에서 미루었던 冬虫夏草·三七根, 계피 등의 몇가지 加工品을 이곳에서 볼수 있었으나 끝내 栽培과정이나 加工과정을 見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金東均支部長이 애쓰면서 求하고저하던 팜플(pamphlet)은 볼수 없었다. 加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문앞에서 現場見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보다 高位層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체 물러 나와야 했다. 見學과정에서 中國産인 地黃, 川芎, 당귀, 복령, 강활, 백출, 목단피, 두충, 백지, 우슬, 반하 등을 유심히 점검해 보았으나 우리나라 主産品과 별다른 차이를 선듯 발견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色다른 이름들의 自然, 非自然生의 草材들이 줄비하게 잘 쌓여져 관리되고 있는데는 정말 中國에서의 漢方比重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장차 官·民 어느편이던간에 이와같은 施設과 取扱管理상태를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生覺하면서 하루의 알찬 見學과정을 마치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와 그동안의 피로를 해결하는데 힘썼다.

雲南省에서의 漢方分野 見學課程에 대하여 우리 一行 各各의 리포트가 취합 될수만 있다면 생생한 기록집을 만들수 있겠다고 生覺하면서 내일은 世界에서 둘도없는 2억7천년前에 천지개벽(인도 북부와 中國남부지역의 지각변동)에 依하여 바다가 육지로 변해 생겼다는 해발 1천8백m高地에 형성된 기암괴석의 石林 地帶를 관광하는 날이다.

◇91년 8월21일 달음



◇ 머리의 세배나 되는 재배생 복령을 들고 있는 박영임감사와 필자



◇ 石林 톱니바위 위에서의 필자

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行政및 生産 지도 委員會 召集敎育 : 지난 8月1日 發足된바 있는 行政및 生産指導 委員全員을 10月11日 召集코 91년 業務 實績중대를 爲한 實務活動 敎育을 실시한바 있다. (1面 참조)

○제주도 일원 삼도시호 作況調査 실시 : 협회는 10月16日~19日까지 조만식 기획실장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道支部長 길동균씨와 관하 분사무소장들과 합동으로 道內 시호 作況을 조사하였다. 이 地方 농촌진흥원, 제주시청, 북제주군청 등을 방문하여 92년도 시호 재배면적 확대 여건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今年度 作況은 目標의 約80%는 이룩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來年度에는 約40만평의 확대재배가 可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綠生會 開催

○釜山支部 : 10月10日 정살조 副支部長 主管으로 月例綠生會 開催(朴吉夫 支部長 美國視察中.

○江原道支部 : 최윤철(강원지부장) 록생회장 主管으로 定例록생회를 평창에서 소집. 기간중 生藥材 流通現況에 對한 情報交流와 會勢擴張을 爲한 支援대책등 강구.

○경북支部 : 오는 10月31日 尙州에서 3/4분기 록생회 개최.

○충북支部 : 오는 10月31日 淸州에서 3/4분기 록생회 개최.

▲경북 榮州市 生藥共販場 案內

本會 榮州市 事務所長 류복규氏가 1年余의 각고끝에 지난해 2월에 設立한 本共販場은 이 地域에서도 가장 立地조건이 좋고, 日商權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現在는 名實的 조합品種 뿐만 아니라 약 20개종에 불과하나 앞으로 收集 지역범위를 감안할때 대폭 늘어날 展望이라고 하였다.

◇ 榮州市 生藥共販場 개장

뜻있는 會員 63名이 모여 1人當 60여만원의 出資로 구성한 共販場 규모였지만 그래도 本會 산하에서는 가장 큰 규모와 앞으로 3백평으로 확대계획) 1백30여종의 특건우색이 질서정연하게 갖추어 졌고 현재 비축량은 5백여톤이 된다고 하니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共販場에 集荷되는 物量은 慶尙南北道, 江原道, 忠北道 등 4개道 8개郡에 걸쳐 散在되어있는 生藥農家 約4천호에서 主로 出荷되고 있으며 其品質은 太白山맥줄기와 土質및 기후적 여건 具備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評價 되고 있다 한다.

現在 이 共販場의 生藥材 流通外形 去來量은 年間 約40억원에 達한다고 하며 모든 行政處理는 榮州市 事務所로서의 事業등록이 써비스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완숙만 해진다면 本格的인 生藥材 共同販賣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展望되었다.

(편집실 제공)

생약 관련 기사

생약 관련 기사

생약 관련 기사